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중간보고서

비행 중 날개 접힘으로 추락  
개인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21번 국도  
2016. 3. 27.



2017. 5. .

#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사고 중간보고서

## 가. 사고

- 운영자: 개인
- 발생지점: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21번 국도 상
- 발생일시: 2016년 3월 27일 12:25경(한국표준시각)
- 항공기 형식 및 등록부호: 없음
- 비행 유형: 개인 레저비행
- 부상자 수: 조종자 사망
- 패러글라이더 손상: 없음
- 조종자(남, 40세)의 자격증명 보유  
패러글라이더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약 16년간 총 300회의 패러글라이딩 비행 경력이 있었음.

## 나. 개요

2016년 3월 27일 12:25경 조종자는 충남 보령시 옥마산(해발 599m) 활공장을 이륙하여 비행 중 지상으로 부터 약 290m 높이에서 패러글라이더의 좌측 날개가 접히면서 반시계방향으로 선회하자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다시 반대편 날개가 접히고 1~2회 정도 회전하면서 지상으로 부터 약 119m 정도 높이에서 착륙장 부근 21번 국도의 외곽순환도로에 수직으로 추락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조종자는 사망하였다.

## 다. 사고현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및 잔해 조사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이 비행을 하였던 클럽회원과 옥마산 활공장 현장 조사 및 착륙장 관리자를 면담 조사하고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 라. 비행경위

2016년 3월 27일 12:00경부터 조종자(남, 40세)의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 12명은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옥마산 활공장에서 회원들의 비행 수준에 따라 초급자 수준의 회원들이 먼저 이륙하고 상급자는 나중에 이륙을 하였다.

12:30경 조종자를 포함한 상급자 수준의 3명은 마지막에 이륙하였으며 조종자는 상급자 수준의 조종자들과 함께 12번째로 이륙하였다.

13:07경 착륙장에 있던 동호회 회원 2~3명이 ‘어’라고 하면서 놀라는 소리에 사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착륙장에서 약 300~400m 떨어진 지점 상

공 약 290m 높이에서 조종자의 패러글라이더 캐노피 왼쪽 부분이 돌풍으로 캐노피의 조종줄에 걸린 것 같은 모습으로 접혀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였다.

조종자가 균형을 잡으려고 조종줄을 잡아당기고 놓기를 반복하였으나 캐노피의 접힌 왼쪽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한 보조낙하산도 펴지지 않았다.

캐노피의 왼쪽 부분이 접힌 상태에서 캐노피의 반대편 날개가 접히면서 선회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패러글라이더가 왼쪽으로 2~3회 정도 선회하면서 자유 낙하하는 것처럼 지상으로 떨어졌다.

조종자는 착륙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21번 국도 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마. 추가정보

없음

#### 바. 안전권고

이 사고 조사와 관련한 안전권고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